

■ 주요 뉴스: 미국-이란, 평화협상에 대한 온도차 지속

- 미국 5월 비농업고용, 17.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(+8.8만명) 대폭 상회
- WTO, 세계 상품무역 증가세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둔화 징후도 부상
- 주요 신흥국, 5월 인플레이션 움직임 차별화 속 추가 상승 여지 잔존
- 일본 5월 외환보유액, '00년 이후 최대폭 감소
- 인도 정책당국, 루피화 가치 안정 위한 해외자본 유치 제도 도입

■ 국제금융시장: 주가 하락[美 -2.7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상승[美 +6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고평가 부담 속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 
유로 Stoxx600은 0.3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통화긴축 가능성 확대, 평화협상 교착 등으로 상승  
유로화 및 엔화는 각각 0.8%, 0.2% 약세
- 금리: 미국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내 금리인상 전망 강화로 상승  
독일(+2bp) · 이탈리아(+3bp) 등 유럽 금리도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558.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559.6원, 1.3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		6.5일	전일대비			6.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7,383.7	-2.64%	국채 금리 10y	미국	4.53	+6bp
	유럽	622.66	-0.29%		독일	3.04	+2bp
	일본	66,588	-1.31%		일본	2.67	0bp
	한국	8,160.6	-5.54%		CDS	한국	23
환율	달러지수	100.07	0.66%	위험 지표	VIX	21.51	39.68%
	유로화	1.1522	-0.77%	원자재	브렌트유	93.09	-2.04%
	엔화	160.29	-0.17%		금	4,328.5	-3.2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600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환율은 +(-)는 강세(약세).

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미국-이란, 평화협상에 대한 온도차 지속

- 트럼프 대통령,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가 “대성공”을 거두고 있으며,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
  - 미국 재무부, 이란의 에너지(이란산 LPG 운송에 관여한 개인, 단체, 유조선 등)
    - 금융(이란 환전소 및 그 경영진)부문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 부과
- 레자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,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동결 자산 해제가 쟁점. 전쟁 재개 시 전선 확대(인도양, 홍해, باب알만딕 해협, 지중해) 경고
  - 이란 국영 언론, 이란 해군이 오만만에서 미군 전함을 향해 경고용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발표.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주장을 부인하며, 만약 사실이라면 휴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대응
- 레바논 총리,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, 레바논 남부 파괴를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촉구하는 한편, 이란에 대해 레바논을 협상카드로 삼지 말라고 경고
  - 주요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레바논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,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에 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을 촉구
- 한편, 금요일 오전 폭발 사고로 인해 원유 선적이 중단되었던 오만의 미나 알 파할 원유수출 터미널에서 운영이 재개. 해당 터미널은 전쟁 속에서도 중동산 원유를 선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거점 중 하나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미국 5월 비농업고용, 17.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(+8.8만명) 대폭 상회

- 데이터센터 건설, 방산제품 생산, 전쟁발 가격 인상에 대비한 재고비축 수요 등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 속, 북중미 월드컵에 따른 레저·접객 고용 호조에 기인. 실업률은 4.3% 유지, 3~4월 고용은 +9.3만명 상향조정
-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5월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며,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동결이 타당하지만, 최근 추세 지속 시 조만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
- 한편, 미국 상원은 이민세관집행국(ICE)과 세관국경보호국(CBP) 3년간 \$695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52:47로 통과. 다음주 하원 표결 예정

### ■ WTO, 세계 상품무역 증가세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둔화 징후도 부상

- AI 관련 전자부품 수요 급증이 중동전쟁에 따른 광범위한 혼란을 일부 상쇄하며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나, 글로벌 교역지수는 1월 102.3→4월 101.7로 하락하는 등 둔화 조짐도 부상

### ■ 주요 신흥국, 5월 인플레이션 움직임 차별화 속 추가 상승 여지 잔존

- 태국 CPI 상승률은 연료·운송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완화(4월 2.89%→5월 2.79%) 되면서 금리인상 압박이 축소. 다만 하반기 중 3%(중앙은행 목표치 상단) 상회 전망 우세
- 필리핀 물가상승률도 운송비용 완화로 오름세가 둔화(7.2%→6.8%)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(2~4%)를 큰 폭 상회하고, 근원 CPI 상승률(3.9%→ 4.1%)은 2년래 최고수준으로 확대되어 6월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- 한편 터키 CPI 상승률은 32.4%→32.6%로, 대만 CPI 상승률은 1.74%→2.20%로 상승했으며,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가 강화될 소지

### ■ 일본 5월 외환보유액, '00년 이후 최대폭 감소

-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\$1.3조로 전월말 대비 \$770억 이상 감소. 지난달 엔화 약세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(월간 기준 11.7조엔, \$731.1억)의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한 데 기인. 한편 일본 실질임금은 4개월 연속 상승(전년동월비 +1.9%, '21년 이후 최장기간 연속 상승)하면서 6월 BoJ 금리인상 전망 강화

### ■ 인도 정책당국, 루피화 가치 안정 위한 해외자본 유치 제도 도입

-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해 국채 이자소득과 해당 국채의 매각, 교환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으며, 일부 장기 국채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의 보유 한도를 철폐. 인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5.25%로 동결. 한편, 고알 상공부 장관은 다음달 미국과 잠정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

### ■ FAO 5월 식량가격지수, 4개월만에 하락

- 곡물·원당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류·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소폭 하락(-0.2%)했으나 여전히 3년래 최고수준에 근접

## 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주요국(미국·중국 등) CPI 및 PPI 상승률, 무역수지, 독일 산업생산,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및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. ECB,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개최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[yshwang@kcif.or.kr](mailto:yshwang@kcif.or.kr)